



강원에코홈페어 성공 방안 논의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오인철)은 3일 춘천 라비에벨CC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1월25일부터 개최되는 강원 에코홈페어-주택건설건축박람회 성공개최 방안과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최장 대관령터널 전체 구간 관통 '눈앞'

총 길이 21.7km 중 105m 남아

국내 최장터널이자 강원 영동·영서의 장벽을 허무는 원주~강릉철도 대관령터널 굴착공사가 전 구간 관통을 앞두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라건설에 따르면 이달 현재 대관령터널은 전체 21.7km 중 평균군 대관령면 구간인 9공구 구간 105m를 제외하고 굴착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구간은 하루 7m씩 굴착하는 공사 속도에 따라 오는 20일쯤이면 전구간 관통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2012년 6월 착공한 대관령터널은 41개월만에 대관령의 심장부인 평창군 진부면에서 강릉시 성산면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장길이 터널의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특히 공사구간의 평균 경사도가 2.4%에 이르고 터널 최고점인 진부에서 최저점인 성산까지의 표고차가 444m에 달해 터널 중간에 대관령신호장을 만들어 열차의 교행과 비상시 승객들의 대피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오는 25일 오후 3시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번 경사갱 입구에서 대관령터널 관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평창/신현대 sht9204@kado.net

건산연 “내년 건설수주 10.6% 감소할 듯”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보다 감소하지만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은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를 올해 137조6000억원보다 10.6% 감소한 123조원으로 내다봤다.

같은 날 오전 10시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허명수)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6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는 올해 국내 건설수주를 135조1000억원, 내년도는 이보다 8.7% 감소한 123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양 기관 모두 주택부문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내수주를 사상 최대치로 전망하고, 내

년에는 이보다 8.7~10.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올해보다 감소하겠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건산연이 내년도 실적으로 예상한 123조원은 2015년 137조6000억원과 2007년 127조9000억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그러나 하락세 전환에 따라 건설경기 회복국면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지 3년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건설경기 회복국면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42차 이포카 일본대회 16일부터 나흘간 도쿄서 열려

제42차 이포카(IFAWPCA) 대회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 프린스파크타워 도쿄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파트너십과 지속가능성, 건설산업의 뉴프런티어’라는 주제로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가 주최하며 아시아·서태평양 지역 국가 건설업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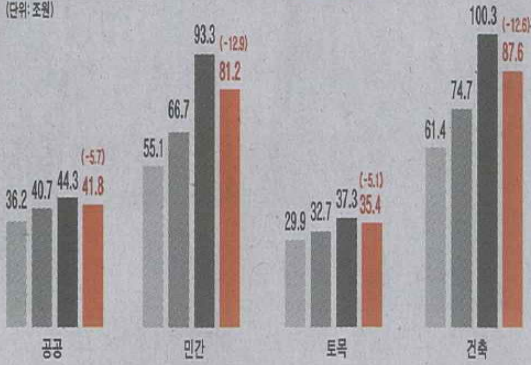
이포카는 한국을 비롯해 △대

만 △일본 △호주 △홍콩 △인도 △뉴질랜드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몽골 △캄보디아 등 18개 국가 건설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민간 건설 국제기구다.

오는 2017년에는 한국에서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내년 민간·公共 모두 주춤... SOC 예산감축 속도조절 필요

2016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단위: 조원)



건설경기 회복세 3년만에 꺾이나

건산연, 올 국내 건설수주 137.6兆... 내년 123兆 전망
 “업계, 신속한 사업 추진·리스크 관리 전략 마련해야”

건산연이 3일 내놓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 전망은 역대 최고치인 137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107조5000억원보다 28.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 주거부문 수주실적 증가가 전체 수주 증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공공과 토목에 비해 민간과 건축 수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은 44조3000억원으로 작년 40조7000억원보다 8.8%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민간은 66조7000

서 61조4000억원으로 49.5%라는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전망에서는 민간과 공공 모두 감소세가 예상된다.

국내 전체 수주는 123조원으로 -10.6%, 공공은 41조8000억원으로 -5.7%, 민간은 81조2000억원으로 -12.9%의 증감률을 보일 것으로 건산연은 내다봤다. 올해 증가세를 견인했던 민간수주가 내년에는 감소세를 이끌 예정이다.

건산연은 이 같은 감소세의 원인으로 민



3일 오후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6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방청객들이 바닥에 앉아서 2016년 건설경기 전망을 듣고 있다. (인문수기자 ays77@)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건산연은 분석했다. 공종별로는 주택투자가 호조세를 보여 전체 건설투자 증가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반면 토목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지 3년 만인 2016년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건설경기 회

복국면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OC 예산 감소 속도 조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측면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향후 미입주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짧은 호흡기에 2020년 이후 예상되는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 및 경영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의 건설경기 회복국면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SOC 예산 감축 속도 조절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건설업계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석기자 jskim@

3일 오후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6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방청객들이 바닥에 앉아서 2016년 건설경기 전망을 듣고 있다. (인문수기자 ays77@)

3일 오후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6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방청객들이 바닥에 앉아서 2016년 건설경기 전망을 듣고 있다. (인문수기자 ays77@)

3일 오후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6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방청객들이 바닥에 앉아서 2016년 건설경기 전망을 듣고 있다. (인문수기자 ays77@)

3일 오후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6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방청객들이 바닥에 앉아서 2016년 건설경기 전망을 듣고 있다. (인문수기자 ays77@)